

문학에서 찾는 책의 흔적

李白이나 杜甫 같은 盛唐期 시인들에게는 못미치지 않지만, 杜牧과 함께 晚唐의 대표적 시인으로 꼽히는 이가 李商隱이다. 갖가지 괴벽스런 典故를 사용해 난해시의 풍모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을 즐겨 썼던 그는, 만권의 서책 속에 묻혀 그곳에서 시어를 찾아내는 시작 태도를 고집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른바 書齋臭 짙은 작품을 장기로 삼았다는 것인데, 이처럼 시문을 지을 때 많은 참고 서적을 벌려 놓는 것을 '癡祭魚'라고들 한다. 사람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수달이 잡은 물고기를 사방에 늘어 놓는다는 뜻이다.

이상은의 경우가 다소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책읽기와 글쓰기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글쓰기가 곧 책읽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연구나 비평의 영역은 말할 것이 없고, 창작에서도 사정은 대개 마찬가지다. 그러나, 글쓰기에 남아있는 책읽기의 흔적은 작품마다 제각각이다. 이상은의 시에서처럼 구체적인 전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령 서정주의 「新羅抄」처럼, 그 시적 상상력이 「三國遺事」라는 특정한 책 한권의 독서체험에 기대고 있는 예를 찾아볼 수도 있다.

소설에 이르면 책과 책읽기의 흔적이 보다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우선, 단순한 소재의 차원에서 책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플로베르의 「愛書狂」이 좋은 보기로, 여기서 주인공은 유일본을 갖겠다는 편집증적 욕심 때문에 이 세상에 단 두 권만이 남아있는 책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있는 또다른 장서가의 집을 불태우으로써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다.

미국의 레이 브래드버리가 쓴 逆유토피아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화씨 451」에서는 책이 문명비판의 핵심적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 작품이 그리는 미래는 책을 읽거나 소지하는 일이 범죄행위로 처단되는 사회이며, 주인공의 직업은 책을 불태우는 放火手다. 종이 가 불에 타는 온도인 '화씨 451'을 제목으로 삼은 것도 바로 그래서인데, 시사적인 것은, 책을 금하는 정부의 조치에 저항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책을 통제로 암기하고 그 기억을 글이 아닌 말로 전수한다는 점이다. 작중의 한 인물은 이렇게 말한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싶지 않소? 내가 바로 플라톤의 「국가」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몬스 박사가 바로 마르쿠스라고."

최근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책을 그 소설적 출발로 삼고 있어 흥미를 끈다. 작품 속의 첫 사건인 규장각 검서관 장종오의 피살이 「금등지사」라는 가상의 책에서 비롯되고 있는 데다가, 소설의 전체적인 외양 또한 주인공 이인몽이 남겼다는 「취성록」을 번역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그밖에도 이 소설에는, 교양으로 소화된 독서체험이라기보다는 소설을 쓰기 위한 학습의 결과로 보이는, 동양 고전과 우리 역사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책읽기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인화 스스로 「영원한 제국」의 모티브로 응용한 책들 가운데 하나로 꼽은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에서도 가상의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세 이탈리아의 한 수도원 장서관에서 벌어지는 연쇄 살인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이 소설에선, 「영원한 제국」의 「금등지사」가 그랬던 것처럼, 「희곡론」으로 짐작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 연쇄살인의 원인제공자가 된다. '멜크의 수도사 아드소의 필사본 수기'를 재현하는 형식을 취한 점, 중세 유럽의 기독교 이단논쟁에 대한 해

박한 지식의 구사 등에서도 「장미의 이름」은 「영원한 제국」의 한 선례를 보여 준다. 다만, 「금등지사」가 정독독살설을 이끌어내기 위한 소설적 장치에 머물 뿐인 반면, 「시학」 제2권의 경우는 진리를 독점하려는 「미소없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의미있는 상징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르다.

최인훈의 일련의 소설들은 그 주인공들에게서 書齋人의 체취를 쉽게 맡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읽기의 흔적이 자주 발견된다. 「현실에 대한 관념의 적극성」으로 평가되는 최인훈의 작가적 태도는 대개의 경우 그의 주인공들을 사변적이며 지적으로 세련된 서재인으로 빚어내곤 한다. 「광장」의 이명준, 「회색인」과 「서유기」의 독고준, 「구운몽」의 독고민, 그리고 「화두」의 주인공 등이 다 그렇다. 이병주의 「행복어사전」에 나오는 서재필에게서도 매력적인 서재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웬지 관념적이어서 덜 친근하게 여겨지는 최인훈의 인물들에 비해 여리고 느슨한 느낌을 준다.

문학작품에서 책의 흔적을 찾아내는 일은 어쩌면 문학의 본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모른다. 그것은 다만,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미는 있다. 예컨대 '우리 소설속에 나타난 책의 이미지'라든가 '한국소설의 서재인적 인물 유형' 같은 연구가 나온다면 꽤 흥미를 끌지 않을까 싶다. 특히, 혼성모방이니 베끼기의 전략이니 하여 이른바 텍스트간의 상호관련성이 화제를 모으는 요즘 같은 때라면, 문학작품속에서 앞선 책들의 흔적을 살피는 일은 체계만 잘 갖춰질 경우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저널

통권 제150호 / 1994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나는 정신세계사의 책을 몇 권이나 읽었을까?”

□ 성자가 된 청소년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감동의 영적 소설집/바바 하리 다스 지음/류시화 옮김/5,000원

□ 빠빠라기

처음으로 문명을 본 남양의 추장 투이아버가 들려주는 문명의 우스꽝스런 본질/최서림 옮김/4,000원

□ 털없는 원숭이

인간적 행위의 동물적 의미를 들추는 냉정한 인간 성찰/데스먼드 모리스 지음/김석희 옮김/5,000원

□ 파라독스 이슬 우화

인간과 삶에 대한 신선한 역설이 담긴 '전혀 다른' 이슬 우화/로버트 질러 지음/김정우 옮김/3,800원

□ 파라독스 중국 우화

루쉰, 귀모워 등 중국의 현대 작가 22인의 우화 선집/루쉰 지음/이효림 엮고 옮김/3,500원

□ 자유를 위한 변명

구도의 출판 홍신자의 자유롭고 파격적인 삶의 이야기/홍신자 지음/5,000원

□ 푸나의 추억

라즈나쉬의 첫 한국인 제자였던 홍신자의 인도에서의 구도 체험/홍신자 지음/5,000원

□ 식물의 정신세계

꽃에게 영혼이 있다는 시인들의 직관을 과학으로 증명한 책/피터 톰킨스 지음/황정민 옮김/7,500원

□ 초인생활

히말라야 초인들의 초자연적 세계를 목격한 한 미국인의 기록/베아트 T. 스톨딩/정창영 옮김/7,000원

□ 나는 왜 아버지를 잡아먹었나

소설로 풍자한 인류 진화사. 200만 년을 단숨에, 웃으며 읽는다/로이 루이스 지음/김석희 옮김/4,800원

□ 나는 왜 내가 아니고 나인가

인디언 추장, 용사, 아낙네들의 말을 통해서 읽는 삶의 의미/시애틀 추장 외/류시화 옮김/4,500원

□ 사람을 살리는 단식

단식으로 암을 치료한다—이론·방법·임상을 망라한 단식 실천 지침서/장두석 편저/6,500원

□ 건강도인술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중국 3천 년의 건강 비법/하야시마 마사오 지음/김중오 옮김/6,500원

□ 건강기공

동양적 건강법의 총체인 기공의 원리와 상세한 수련 방법/이동현 지음/6,500원

□ 이집트의 신비

거대 유적의 비밀과 정신적 유산의 신비를 깨는 영적인 이집트 탐험/폴 브리턴 지음/이규형 옮김/6,500원

□ 丹

민족의 역사와 미래, 정신수련법을 다룬 민족 소설/권태훈 증언/김정민 지음/4,500원

□ 한단고기

사대주의와 식민사학에 밀려 천여 년을 떠돌던 문계의 역사서/임승국 역주/7,000원

□ 옛 詩情을 더듬어

신라에서 조선 후기까지, 빼어난 우리 한시 300여 수를 평설/손종섭 편저/12,000원

□ 天符經의 비밀과 백두산족 文化

우주의 원리가 숨겨진 秘典(天符經)의 심오한 세계와 우리 고유 문화/권태훈 지음/12,000원

□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정리, 해설한 책/봉우린 태훈 감수/정재승 편저/6,500원